

“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”



## 보도자료

“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”

- ▶ 보도일시: 2012.5.29(화) 석간,  
<인터넷 5.29(화) 09:00 이후>
- ▶ 총 13 쪽

◆ 직업능력평가과 과장 송민선  
사무관 박은정

☎ 02-6902-8220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### 열린 고용사회 만들기, 숙련기술인과 함께 합니다

- 제1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(2012~2016년) 발표 -

- 정부는 29일(화)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「제1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」을 발표하고 ‘역동적 고숙련 사회’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.

#### \* 4대 정책과제

- ① 숙련기술 가치의 재발견      ② 능력 중심 문화 확산
- ③ 산업현장 숙련혁신 여건 조성      ④ 숙련기술장려 인프라 구축

- 이번 계획은 지난 2010년 전면 개정된 ‘숙련기술장려법’을 바탕으로 수립한 5개년 계획이다.
- 최근 고졸채용 붐과 함께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는 열린 고용사회 흐름을 보다 확산시켜 정부·기업·학교가 적극 나서서 숙련기술인력을 키워내고, 그에 필요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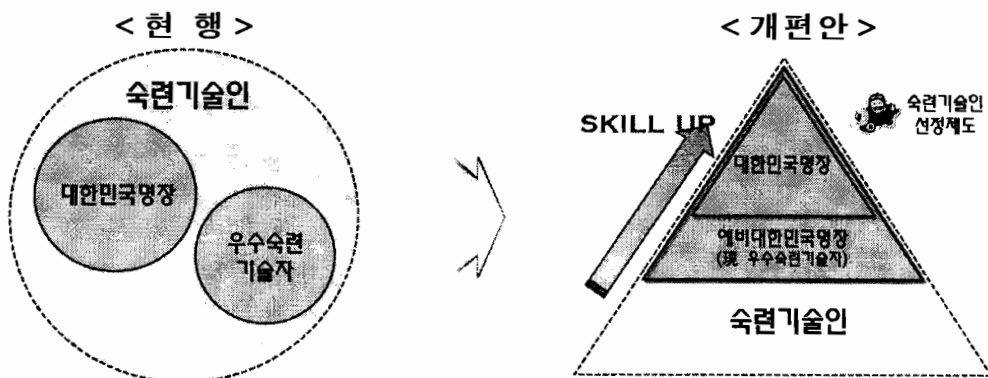
#### 숙련기술 가치의 재발견

- ‘학력 보다 실력’을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려면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숙련기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.

- 이에, 정부는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숙련기술자\*, 대한민국명장\*\*제도를 정비, 「예비대한민국명장」(現 우수 숙련기술자) 중에서 「대한민국명장」을 선정해 숙련기술인에게 성공의 비전을 제시하고, 기술을 한 단계씩 높여나갈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.

\* 숙련기술을 보유하고,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 (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)

\*\* 최고 숙련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,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 (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)



- 아울러 학력과 학벌의 벽을 넘어 기술과 실력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의 성공스토리를 발굴, 다큐멘터리·드라마·공익광고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숙련기술인의 롤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.
- 또, ‘기능경기대회’의 경우 직종별 인력수급 전망, 산업 성장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수요가 부족한 직종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, 매년 직종 신설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여 장려 필요성이 있는 직종은 신규로 추가한다.
- 그리고 기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출전을 위한 관문으로만 여겨져 소수 엘리트 학생\*들이 주로 참여하였던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국민 참여형 기능경기대회로 전환한다. 팀워크에 의한 과제수행으로 기업단위나 학교단위로 참여한다거나, 지역별로 발달된 직종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활성화한다.

\* '12년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비율: 고등학생 82%, 개인 5.6%, 산업체 3.4%

-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, 우수숙련 기술인이 참여하는 진로코치 상담 등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을 갖고 기술력을 키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 및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.
  - 특히 글로벌숙련기술진흥센터\*를 구축, 우수 숙련기술인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, 개발도상국 초청연수 등 직업훈련 ODA(공적개발원조)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한국식 숙련기술 축적 노하우를 국제적으로 전파해 나가는 등 숙련기술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.
- \* 글로벌숙련기술진흥센터: 주요시설로 국제기능올림픽 명예의 전당, 국제기능올림픽 역사박물관 등이 있으며,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국제협력사업 및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등을 추진

### 능력 중심 문화 확산

- 일터와 사회에서 숙련기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숙련을 중요시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, 숙련기술인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.
- 직종별로 「핵심직무역량평가」 기법을 개발·보급, 채용이 학력·스펙보다 실력·능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을 만들어 나가고
  - 숙련기술인에게 취업, 창업, 주택, 병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지원을 확대하며
    - \* (취업)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DB관리 및 취업지원 MOU 체결 등 지원, (창업) 창업자금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, 지역 거점 '작품상점형 및 체험형 공방' 운영 지원, (병역)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에 대한 산업기능 요원제도 유예기간 연장 검토 등
  -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숙련기술인력의 교육·훈련, 승진, 보상의 기준이 되는 숙련형성경로 모형\*을 직종별로 개발·보급하여 기업의 인사관리와 근로자의 경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.
    - \* 직종별로 숙련수준의 단계에 맞추어 업무·직위 등을 제시하여 숙련기술인의 경력관리에 활용하는 모형의 일종

## 산업현장 숙련혁신 여건 조성

- ☐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우선, 고숙련 근로자를 사내강사로 활용하도록 교수기법을 지도하고, 기업 학습조직 구축·운영을 지원하는 등 ‘기업 내 훈련’을 강화한다.
  - 계약학과 훈련비를 지원하고 대입 재직자 특별전형 및 기업대학 지원을 확대하는 등 ‘일·학습 병행’도 뒷받침하기로 했다.
- 또한, 산업현장에서 기술을 연마한 우수 숙련기술인들을 「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」으로 구성, 특성화고와 대학 등에서 숙련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게 하고, 중소기업에 종합 HRD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- 더불어, 특성화고 학생의 기업 현장실습과 교사의 산업현장 직무 교육을 활성화시켜 산업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과 훈련과정을 개편할 예정이다.

## 숙련기술장려 인프라 구축

- ☐ 정부는 숙련기술장려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기로 했다.
- 숙련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하고,
- 숙련기술인의 기술수준과 경력 등의 정보를 축적한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, 우수숙련기술인이 각종 정부위원회에 현장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, 우수숙련기술인들의 네트워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.

-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열린 고용사회를 지향하는 노력 속에서 숙련기술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, 이러한 추세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숙련기술장려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범정부 차원에서 나오게 되었다” 고 전하면서
- “숙련기술인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대우와 처우를 개선하고, 어렵게 습득한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원활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 정비하겠다” 고 밝혔다.
- (사)대한민국명장회 김영모 회장은 “우리 사회에서 숙련기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훌륭한 숙련기술인이 더 많이 나오려면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신의 기술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” 면서 “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” 고 전했다.
- (사)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오왕근 회장은 “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능그랑프리를 활성화시키고 학교 수업과 기능경기대회 과제를 연계하면 소수 엘리트 중심의 기능경기대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” 이라며 열린 기능경기대회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비추었다.

<붙임> 제1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(요약본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박은정사무관(☎ 02-6902-8220)에게  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---

『역동적 고속권사회 구축을 위한』

**제1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[요약본]**  
**[2012~2016]**

---

**2012. 5**

**관계부처 합동**

# 순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. 추진배경 .....            | 1 |
| II. 정책비전 및 목표 .....      | 2 |
| III. 주요 추진과제 .....       | 3 |
| 1. 숙련기술 가치의 재발견 .....    | 3 |
| 2. 능력 중심 문화 확산 .....     | 4 |
| 3. 산업현장 숙련혁신 여건 조성 ..... | 5 |
| 4. 숙련기술장려 인프라 구축 .....   | 6 |

[참고] 제1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[전문]

- 지식기반사회의 도래, 산업기술의 고도화로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산업사회의 흐름이 바뀜
  -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가치 창출의 근원은 산업현장의 기술을 체화한 지식 근로자(intelligent workers)인 “숙련기술인력”임
    - \* “숙련기술인”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상 기술계 자격취득자(산업기사, 기사, 기술사 관련)와 기능계 자격취득자(기능사, 기능장 관련) 포괄
- 특히 열린 고용사회 추진을 통해 대학 학벌보다 숙련기술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바, 이러한 추세를 더욱 확산시켜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숙련기술인력 양성 기반 공고화 필요
  - ※ 대학진학률(OECD·교과부, %): 한국(83.8, '08년→72.3, '11년), 일본(49, '09년), 독일(40, '09년)
  - 최근 마이스터고 등 전문계고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등 청소년들의 숙련기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힘입어
    - ※ 전문계고 취업률(교과부): '09년 16.7%→'10년 19.2%→'11년 25.9%→'12년 38.1%
    -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관행을 확산, 숙련기술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늘리는 한편, 저출산·고령화, 베이비부머의 본격 은퇴 등 숙련기술인력 부족 문제에 효과적 대응 필요
  - 이를 통해 “숙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정당한 평가 → 숙련기술인력의 양적·질적 제고 → 고부가가치(고성과, 고보상) 창출”의 선순환 형성
- 반면 그간 중장기·체계적 숙련기술장려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, 기업과 학교 등의 참여 부족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미흡, 시너지 효과 창출에도 한계
  - '10년 「기능장려법」을 「숙련기술장려법」으로 개정, 숙련기술 관련 패러다임 전환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고자 노력하였으며, 동법 제5조에 따라 ‘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’ 수립 및 시행하고자 함
  - ❖ 열린 고용사회 구현을 통한 숙련 선순환구조의 형성으로 산업현장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“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”을 마련



## II

## 정책비전 및 목표

### 비전

역동적 고숙련사회

### 목표

숙련기술인 경제·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산업현장혁신 촉진

#### 1. 숙련기술 가치의 재발견

- 1-1. 단계적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체계 구축
- 1-2. 최고의 숙련기술인 국민스타화
- 1-3. 열린 기능경기대회 운영
- 1-4. 숙련기술강국으로서 코리아 인식 확산
- 1-5.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

#### 2. 능력 중심 문화 확산

- 2-1. 숙련중시 기업문화 정착
- 2-2. 숙련기술인 정부지원 확대
- 2-3. 국가기술자격의 숙련평가 역할 강화
- 2-4. 직종별 숙련형성경로 개발·보급

#### 3. 산업현장 숙련혁신 여건 조성

- 3-1. 숙련혁신 공감대 형성 및 확산
- 3-2. 일터혁신 및 숙련향상 지원
- 3-3. 산업현장 숙련기술인들의 숙련기부 활성화
- 3-4. 맞춤형 숙련기술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

#### 4. 숙련기술장려 인프라 구축

- 4-1. 숙련인력 수급현황 조사·분석
- 4-2. 숙련기술인 네트워크 구축 및 역할 강화
- 4-3. 숙련기술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
- 4-4. 숙련기술 장려사업 재정 기반 강화

### 추진 전략

정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및  
숙련기술장려에 대한 기업, 학교와 공감대 확산·역할 확대

### Ⅲ 주요 추진과제

#### 1. 숙련기술 가치의 재발견

- (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제도 개편) 단계적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체계 구축을 통해 숙련기술인 발전 경로 제시
  - 「예비대한민국명장」(現 우수 숙련기술자) 중 「대한민국명장」 선정
    - ※ 현재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제도는 ①대한민국명장 ②우수숙련기술자 ③이달의 기능한국인 ④숙련기술전수자 ⑤품질명장이 있음
  - 대한민국명장 명장패의 명의를 대통령(현행 고용부 장관)으로 하여 대한민국명장의 위상을 제고
- (최고의 숙련기술인 국민스타화) 학력과 학벌의 벽을 뛰어 넘어 기술과 실력만으로 성공한 인물들을 발굴, 스토리텔링 홍보
  - ※ 연 5명 이내를 선정,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적정한 온·오프라인 매체로 홍보
- (열린 기능경기대회 운영) 기능경기대회에 팀 과제 수행, 지역 특화 직종 개설, Young스킬올림피아드 개최 등을 통한 민간직능단체, 산업체 근로자, 지역주민 등 참여를 확대, 숙련기술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도 제고
  - ※ 참가자 분포('12년 지방경기 접수): 고등학생 82%, 개인 5.6%, 산업체 3.4%
  - 직종별 인력수급 전망, 취업률, 산업성장 등을 고려하여 산업수요가 부족한 직종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, 정부가 장려할 필요성이 있는 직종은 신규로 추가
  - '과제 출제부터 심사까지' 산업계 인사 참여를 활성화하여 산업 현장과의 연계 및 참가자 취업 촉진
- ("숙련기술강국 코리아" 인식 확산)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명예의 전당 및 역사박물관 개설 추진(글로벌숙련기술진흥센터 내) 및 직업훈련 ODA\*등을 통해 숙련기술강국의 면모를 국내·외에 전파
  - \* '91~'10년 KOICA 사업을 통한 직업훈련원 건립 등 73개 프로젝트 추진, 최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개도국의 직업훈련 분야 핵심 전문기술관료를 양성 중('11~'13년), UAE와 직업훈련분야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MOU 체결('12.5월) 등 진행
  - ※ '67년도 이후 국제기능올림픽에 총 26회 출전하여 17차례 종합우승
- (청소년 진로교육 강화) 숙련기술 관련 직업체험 및 과정 확대, 직업정보 제공, 우수 숙련기술인 진로코치로 활용, 진로 관련 교사연수 활성화 등을 통한 진로교육 강화

## 2. 능력 중심 문화 확산

- (숙련중시 기업문화 정착) 「핵심직무역량평가」 기법 개발·보급하고,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전문인력 범위를 확대하여, 기업체의 학력이 아닌 실력에 따른 채용관행 확산

### <핵심직무역량평가제도 개요>

#### ◇ 필요성

-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“핵심직무역량에 대한 평가기법”을 개발·보급하여 기업의 학력 중심 채용 관행 개선 지원

#### ◇ 추진방안

- (평가모델) 인·적성검사, 직무역량 진단, 심층면접 등으로 구성된 “(직군별) 핵심직무역량 패키지 평가모델” 개발(대/중견/중소기업 구분 개발)
- (활용 및 확산) 학력을 선발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한 기업을 중심으로 평가 모델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, 채용대행서비스(모집, 선발 등)를 결합하여 지원

- 「숙련기술장려친화성지표\*」를 개발, 평가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채용·임금·승진·정년 등 기업 인사관리에서 숙련기술인 우대 촉진

\* 채용·임금·승진·정년 등 인사관리에서 숙련기술인을 우대하는 정도를 나타낸 지표로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(「숙련기술장려법」 제16조제2항)시 활용

- (숙련기술인 정부지원 확대) ‘기능경기대회 입상자’들에 대한 취업 지원 MOU·고용센터 최우선 취업알선대상자 선정, ‘전문계고 학생’ 공무원 적극 채용 추진 등을 통해 숙련기술인의 취업지원

- 우수 숙련기술인 창업자금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, 중소기업 종사 숙련기술인 주택 지원 강화,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유예(현재 ‘15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) 등을 통한 숙련기술인의 안정적 계속 종사 지원

- (국가기술자격의 숙련평가 역할 강화) 학력 대신 능력 중심 문화 정착의 도구로서 숙련기술인의 숙련수준 및 기술 보유 정도를 판단하는 국가 기술자격의 선별 기능 제고

\* 국가기술자격의 출제기준·검정방법 개편 등을 통해 산업현장성을 제고하고, 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종목의 신설·통합·폐지

- (직종별 숙련형성경로 개발·보급)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을 활용, 훈련·승진·보상 등의 기준이 되는 숙련형성경로모형을 개발·보급하여 근로자의 경력관리 및 기업의 인력관리 지원(‘11년 6종→’16년 50종으로 확대)

### 3. 산업현장 숙련혁신 여건 조성

- (숙련혁신 공감대 형성 및 확산) 숙련기술 전문가, 정부 각 부처, 근로자, 사업주 등이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, 숙련혁신 공감대 형성·혁신 방안 논의
  - ※ 노사정위의 의제로 채택하여 숙련혁신위원회 구성·운영, 산업별 협의회 등과 연계, 지역의 경우 지역별 노사민정 위원회의 주요의제로 포함 유도
- (일터혁신 및 숙련향상 지원) 숙련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일터혁신 컨설팅을 제공하고, 일터혁신 우수 기업 발굴 및 인센티브\* 확대
  - \* 공공입찰 우대, 정부 포상 가점, 근로감독 면제, 홍보 강화 등
- 고속련 근로자를 사내강사로 활용하도록 교수기법을 지도, 기업 내 자체 학습조직 구축·운영 지원\*을 통한 기업 내 훈련 활성화
  - \*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(S-OJT, 한국기술교육대, '12년 280명), 중소기업 학습 조직화 지원('12년 253개소) 확대 추진
- 계약학과 훈련비\* 지원 및 대입 재직자 특별전형제도 활성화, 기업대학(학위 사내대학/비학위 교육훈련기관) 지원 확대\*\* 등을 통해 일·학습 병행 분위기 조성
  - \* 중소기업형 계약학과: '11년 21개 과정 565명 → '12년 26개 과정 1,000명으로 지원 확대 (전문학사, 학사, 석사)
  - \*\*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기업형 운영기관으로 선정
- (숙련기부 활성화) 대한민국명장, 기능한국인,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산업현장 우수 숙련기술인들을 「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」으로 구성('12년 95명 선정\*)
  - \* 기계, 재료, 화학 등 제조업 중심 7개 기술·기능분야와 인적자원개발분야로 구분하여 선정
- 특성화고, 대학 등에서 이들의 숙련기술, 현장경험 등을 바탕으로 기업에서 “실제 활용할 수 있는” 실습교육 실시
- 아울러 HRD 관리체계가 부재한 중소기업 대상, HRD 및 기술 진단이 결합한 중소기업에 종합 HRD 서비스 제공
- (맞춤형 숙련기술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)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직업 교육과정을 개편하고, 특성화고 학생의 기업 현장실습 및 특성화고 교원의 산업현장 직무교육 활성화
  - \* 한국기술교육대·폴리텍·산업기술대 등을 활용, 특성화고 교원 산업현장 연수 실시

## 4. 숙련기술장려 인프라 구축

- (숙련인력 수급현황 조사·분석) 숙련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숙련수준별 인력의 수급현황을 조사·분석하고 일정한 주기로 발표

※ 숙련수준별 인력 수요는 “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”를 보완해서 파악

- (숙련기술인 네트워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) 숙련기술인단체를 중심으로 「숙련기술인 협의회」를 구성하고, 숙련기술인이 관련 정부위원회에 현장전문가로 참여, 정책 수립 시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지원

- 우수 숙련기술인들의 기술수준, 경력 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기업, 공공기관 등에게 제공, 이들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\* 토록 지원

\* 구인정보 제공, 직업진로지도 강의 온라인 신청, 우수 숙련기술인 생산품 전시·홍보 및 판매 등 활용

- (숙련기술장려사업 재정 기반 강화) 숙련기술장려적립금\*의 재정기반을 다양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 지원 외 민간의 자율기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\*\* 마련

\* 대한민국명장·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에 지급되는 계속종사장려금, 국제기능올림픽 합동훈련 재료비 지원 등에 사용

\*\*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을 기부하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, 결산자료를 해당 기업에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안 검토

- 아울러 숙련기술장려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체적 운영수익금\* 확보 추진

\* 글로벌숙련기술진흥센터 연수, 작품상점형 공방 운영 등